

《찰나멸논증》의 인용 출처를 통해 본 라뜨나끼르띠의 후기 유가행파에서의 위치

우 제선(동국대학교 불교학과)

1. 서론

라뜨나끼르띠는 11세기 불교 논사이다. 그는 스승 즈나나스리미뜨라(Jnarmitra, ca. 980-1030)와 함께 후기 유가행파의 교설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라뜨나끼르띠는 불교뿐만 아니라 브라만교, 자이나교 등에도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고대 인도 종교철학에 대한 이해로 인해 티벳 불교사학자들은 그를 하늘의 빛나는 별 중의 하나로 불렀다.¹⁾

하지만 즈나나스리의 전기가 <<靑史>>나 따라나타의 <<티벳사>> 등에 널리 소개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라뜨나끼르띠의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들 문헌에서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심지어 인도 및 티벳 역사서에서조차도 그가 즈나나스리의 직계 제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몇몇 티벳 자료를 통해서 라뜨나끼르띠와 관련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1) 그는 후기 유가행파에 속하는 중요한 인물이다.²⁾ 2) 그는 티벳에 잘 알려진 비끄라마설라 사원의 아띠샤(Atiśa)와 비슷한 연배이나 약간 후배였다.³⁾

1) Chattopadhyaya (1967): 131.

2) Chattopadhyaya (1967): 93, 409.

3) Chattopadhyaya (1967): 131 등.

일반적으로 티벳 사료들을 이용할 때, 모든 경우에 정확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본에서 현대 불교학의 선구자로 손꼽히고 있는 가지야마가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는 티벳 전통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⁴⁾ 따라서 라뜨나끼르띠가 인도 종교철학사에서 점하는 위치, 더 구체적으로 후기 유가행파에서 점하는 위치를 살펴보는 것은 그가 남긴 논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라뜨나끼르띠의 논서들에 나타난 인용 출처를 추적하여 그것들이 논의된 배경을 밝힘으로써 그의 사상적 계통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뜨나끼르띠는 유식, 인명학에 관련된 10권의 논서와 많은 밀교관련 논서를 남기고 있다.⁵⁾ 여기서는 다루는 범위를 <<찰나멸논증>> (*Kṣaṇabhaṅgasiddhi*) 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찰나멸논증>>에서 라뜨나끼르띠가 직, 간접으로 인용하는 불교 논사와 힌두 논사가 누구이며, 그들로부터 인용된 개념과 이론은 무엇인지를 밝혀 라뜨나끼르띠가 누구인지를 알아본다.

2. <<찰나멸논증>>과 그 판본

라뜨나끼르띠의 <<찰나멸논증>>은 그의 스승 즈나나스리의 <<찰나멸설품>> (*Kṣaṇabhaṅgādhyāya*)을 간략하게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서는 디그나가 (*Dignāga, ca. 480-540*)가 개척하고 다르마끼르띠 (*Dharmakīrti, ca. 600-660*)가 확립한 후기 유가행파의 핵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찰나설 논증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찰나멸논증>>은 존재의 분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논서이다. 기본적으로 이 논서는 일체가 찰나라는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vastu*)가 무엇인가를 인과론적 입장에

4) Kajiyama (1989): 198.

5) 유식, 인명학 관련 논서에 대해서는 타쿠르의 *Ratnakīrtimibandhāvaliḥ*를 참조.

서 설명함으로써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철학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 논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전개하고 논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주목 받고 있다. <<찰나설논증>>은 찰나설을 부정하는 힌두 반론자와 이에 맞서 증명하고자 하는 불교도의 대론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단 논법의 논증식, 유사인(*hetvābhāsa*) 등 11세기의 논리학의 체계와 형식을 망라하고 있다.

<<찰나멸논증>>은 <합爲性> (*Anvayātmikā*)과 <離爲性> (*Vyatirekātmikā*)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부분 모두 존재(*sattva*)로부터 추론을 통하여 諸行剎那를 증명한다. 그러나 찰나를 논증하는데 있어서 전자는 긍정적 수반관계(*anvaya*)에, 후자는 부정적 수반관계(*vyatireka*)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범위를 보다 더 한정하여 <합爲性> (*Anvayātmikā*)에서 라뜨나끼르띠가 인용한 구절들의 출처를 알아본다.

<<찰나멸논증>> <합爲性>에서 라뜨나끼르띠가 인용하는 구절들을 철저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논서에 대한 정확한 판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계에는 다음의 두 가지 판본이 소개되고 있다.

1) H. Shastrī, *Six Buddhist Nyāya Tracts* (1910)

2) A. Thakur, *Ratnakīrtinibandhāvali* (1957, 2nd ed. 1975).

샤스트리본은 12세기에 쓰여진 벵갈리 필사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필사본은 조잡하고, 많은 폴리오가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있어 논서 전체를 해독할 수가 없다. 반면에 타쿠르본은 인도학자인 상끄르띠야야나(*R. Śāṅkṛtyāyana*)가 티벳 살루사 소장 필사본을 사진으로 찍어 온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이 필사본에 사용된 문자는 프로토-마이틸리어로 10세기 경 북부 인도에서 종교 문헌을 필사하기 위해 널리 쓰였던 문자이다.

샤스뜨리본과 타쿠르본 둘 다 <<찰나멸논증>>을 읽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서로간의 독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아쉽게도 두 본 모두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찰나멸논증>> 78,10에서 샤스뜨리와 타구르는 문맥상 정확한 **vastvantarākāritvena** 대신에 **vastvantarakāritvena**라고 읽는다. 때문에 라뜨나끼르띠의 이론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사본에 의거해서 보다 정확한 비판적 정판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계에 소개되어 있는 빠뜨나 필사본 (ms. 37b-45b)과 네팔 국립 고문서본 (ms. 3-717)과 같은 중요한 자료들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정판본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필자는 이러한 판본 작업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이미 한적이 있다. 여기서는 더하여 이미 언급한 즈나나스리의 <<찰나멸설품>>과 라뜨나끼르띠의 다른 관련 논서 <<항구성비판>> (Sthirasiddhidūṣaṇa), 10세기 경의 힌두 논사인 바짜스빠띠미스라 (Vācaspatimīśra, 10세기 후반)의 <<니아야까니까>> (Nyāyakaṇikā)와 <<띠까>> (Nyāyavārtikatātparyāṭikā), 그리고 바사르바즈나 (Bhāsarvajña, 10세기 경)의 <<니아야부사나>> (Nyāyabhūṣaṇa) 등도 함께 비교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3. <<찰나설논증>>에 나타난 인용 출처

라뜨나끼르띠의 <<찰나설논증>>은 인도 논리학과 존재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이 논서가 다양한 학파 사이의 논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후기 유가행파와 니야야학파와의 논쟁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실 이 논서를 공부하는 것은 각 학파들이 중요한 개념이나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논쟁을 해 왔고, 어떻게 달리 해석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좋은 길이 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우에 라뜨나

끼르띠는 그 이전의 불교와 힌두교 논사로부터 그들의 사상을 직, 간접으로 인용하여 비판 혹은 수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니야야학파와 후기 유가행파의 논사들의 논서로부터 인용 출처를 밝히고자 한다.

3.1. 니야야 논사들부터의 인용 출처

라뜨나끼르띠가 니야야 논사들을 인용하는 목적은 그들의 찰나설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고 이 교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찰나설논증>>에는 네 명의 주요한 니야야 논사가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널리 알려진 베단타 논사와 동명이인인 니야야 논사 상까라 (Śaṅkara)를 들 수 있다. 이 논서에서 그는 존재론의 몇몇 핵심 개념과 관련해서 반론자로 인용된다. 라뜨나끼르띠는 긍정적 수반관계(anvaya)와 부정적 수반관계(vyatireka)는 결정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상까라 논서로부터 구절을 인용한다.⁶⁾ <<찰나멸설품>>과 <<항구성비판>>에도 동일한 구절이 언급되어 있으며,⁷⁾ 두 논서 모두 상까라가 이러한 주장을 편 논사라고 거명하고 있다.⁸⁾ 또한 라뜨나끼르띠는 존재(sattva)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개념인 인과효력(arthakriyāsāmarthyā)의 논쟁과 관련해서 상까라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⁹⁾ 이것은 <<찰나멸설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¹⁰⁾

다음으로, <<니야야부사나>> (Nyāyabhūṣaṇa)의 저자인 바사르바즈냐를 들 수 있다. 그는 라뜨나끼르띠가 비판하는 또 다른 논사로서, <<찰나멸논

6) KSA 71,1-10.

7) KBhA 66,21이하 참조; SSD 126,29이하 참조.

8) 참조 KBhA 66,22: tathā ca śaṅkaraḥ and SSD 172,7: yad api uktam śaṅkareṇa.

9) KSA 74,21이하 참조.

10) KBhA 18,21이하 참조.

증>> 등에서 *bhūṣaṇamata*, *nyāyabhūṣaṇakāra*, *nyāyabhūṣaṇa*, *bhūṣaṇakṛt*, *bhūṣaṇya* 혹은 *bhūṣaṇa*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라뜨나끼르 띠는 전 찰나의 원인이 후 찰나의 결과를 일으킬 수 없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이것이 바사르바즈나의 견해라고 밝히고 있다.¹¹⁾ 이 주장은 <<니야야부사나>>에서 확인된다.¹²⁾ 그는 모순되는 두 속성이 만약 찰나를 달리 한다면 동일한 有法(*dharmīn*)에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바사르바즈나의 견해라고 밝히고 있다.¹³⁾ 즈나나스리도 이 주장이 바사르바즈나의 견해를 확인하면서 그의 <<찰나멸설품>>에서 인용한다.¹⁴⁾ 바사르바의 이 주장은 그의 <<니야야부사나>>에서 찾을 수 있다.¹⁵⁾

뜨릴로짜나(*Trilocana*)는 바짜스빠띠미스라의 스승으로 알려지고 있다. <<찰나멸논증>>에는 두 종류의 인과효율이라는 그의 이론이 소개되어 있다.¹⁶⁾ 그는 찰나인 것은 연속적으로 결과를 생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즈나나스리는 이 주장이 <<니야야만자라>> (*Nyāyamañjarī*)의 저자의 견해라고 밝힌다.¹⁷⁾ 니야야 학파에 전해지는 <<니야야만자라>>는 자안타파따의 것과 여기서 말하는 뜨릴로짜나의 것이 있다. 이 뜨릴로짜나의 논서는 이십지만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안타파따의 논서에 앞서 언급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찰나설논증>>에서 인용되고 있는 <<니야야만잘리>>의 다른 구절들이 뜨릴로짜나의 견해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뜨릴로짜나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본다.¹⁸⁾ 더하여 <<찰나설

11) KSA 77,1-5.

12) NBhūṣ 523,9이하 참조. 이 견해를 바사르바즈나의 것으로 확인하는 것은 참조 KSV 85,29-86,2.

13) KSA 78,16-19.

14) KBhA 22,17-23.

15) NBhūṣ 521,26-522,4.

16) KSA 76,6-9. 또한 참조 KSV 85,25: *trilocanasyāpy ayam saṃkṣiptārthaḥ*.

17) KBhA 28,14이하 참조. 뜨릴로짜나의 <<니야야만잘리>>에 대해서는 Thakur (1975): 21; (1987): 20를 참조.

논증>>에서 라뜨나끼르띠는 범부는 원인의 총체를 인식할 수 없다는 쓰릴로짜나의 주장을 인용한다.¹⁹⁾ 이 주장은 즈나나스리의 <<찰나멸설품>>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그는 이것이 쓰릴로짜나의 주장임을 확인한다.²⁰⁾

마지막으로, 바짜스빠띠미스라는 라뜨나끼르띠가 비판하고자 하는 주요 인물이다. 라뜨나끼르띠는 <<찰나설논증>>에서 그의 <<니아야까니까>>와 <<띠까>>로부터 많은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바짜스빠띠는 다르마끼르띠나 다르뫼따라와 같은 찰나설을 주장하는 불교 논사들을 비판하고, 라뜨나끼르띠는 이러한 그의 비판을 다시 반박한다. 라뜨나끼르띠가 바짜스빠띠에 대해서 주요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의 인과론에 대한 견해이다.²¹⁾ 그가 상세히 소개, 비판하고 있는 바짜스빠띠의 견해는 <<띠까>>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²²⁾ 또한 라뜨나끼르띠는 <<찰나설논증>>에서 결과의 複數性(anekatva) 등에 대한 바짜스빠띠의 견해 등도 인용하고 있다.²³⁾ 동일한 주장에 대하여 즈나나스리는 바짜스빠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주장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힌다.²⁴⁾ 이것은 그대로 <<니아야까니까>>와 <<띠까>>에서 확인된다.²⁵⁾

3.2. 후기 유가행파 논사들로부터의 인용 출처

<<찰나설논증>>에는 라뜨나끼르띠 이전의 많은 불교 논사들의 이론이

18) 참조 KSV 85,25: trilacānasyāpy ayam sarnkṣiptārthaḥ.

19) KSA 81,1-2.

20) KBhA 46,25-26. 특히 참조 KBhA 46,25: tathā ca trilocanāḥ.

21) KSA 75,5이하 참조.

22) NVTṬ 842,29-843,10.

23) KSA 79,11이하 참조.

24) KBhA 50,25-51,1: ayam abhinnaśāmagrīvādo vācaspatē ucitaḥ.

25) NK 95,12이하 참조; NVTṬ 841,5이하 참조.

인용, 소개되고 있다. 그는 찰나설을 논증하기 위해서 후기 유가행파 논사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이론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이들 중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이 학파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디그나가이다. <<찰나멸논증>>에서 라뜨나끼르띠는 디그나가의 이름을 직접 밝혀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는 현량의 대상이 두 종류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유형의 假立 (prajñapti)과 관련하여 디그나가의 이론을 인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디그나가의 논서인 <<우빠다나쁘라즈나쁘띠쁘라까라나>> (Upādāya-prajñaptiprakaraṇa)에서 찾을 수 있다.²⁶⁾

다음으로, 라뜨나끼르띠는 그의 논서에서 다르마끼르띠에게 대단한 존경심을 표시하면서, 다르마끼르띠를 최고의 존칭어인 ācārya, bhuvanaikaguru, 혹은 bhagavān로 부른다. 이 중 bhagavān은 불경에서 부처님을 호칭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라뜨나끼르띠가 다르마끼르띠를 인용하는 방식은 그의 논서로부터 직접 인용하거나 마짜스빠띠와 같은 니야야논사가 그의 논서로부터 인용한 것을 재인용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니야야 학파의 논리가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두 경우 모두 다르마끼르띠의 <<쁘라마나바르띠까>>, <<हेतुबिन्दु>> 등으로부터 많은 직, 간접의 인용을 포함한다. 먼저 라뜨나끼르띠는 모순관계(virodha)에 있는 두 속성은 하나의 동일한 실재에 소속될 수 없다는 다르마끼르띠의 이론을 인용한다. 이것은 다르마끼르띠의 <<스와브르띠>> (Pramānavṛttikasvavṛtti)에서 처음 다루어졌다.²⁷⁾ 이 이론은 찰나설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힌두 논사들과 불교 논사들 사이에 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바사르바즈냐는 <<니야야부사나>>에서 니야야학파의 입장에서 이 이론을 비판한다.²⁸⁾ 반면에 즈나나스리는 후기 유가행파의 입장에서 이것의 타당성을 밝히고 있다.²⁹⁾

26) 참조 Woo (1999): 190이하 참조.

27) PVSV 20,20이하 참조.

28) NBhūṣ 521,26이하 참조.

라프나끼르띠는 동일한 이론을 인과론의 문맥에서 전개하여 인과효율과 비효율은 동일한 대상에는 소속될 수 없다는 이론으로 발전시킨다.³⁰⁾

그 다음으로 뿌라즈나까라굽타를 들 수 있다. 라프나끼르띠는 그를 인용할 때에 *bhāṣya*, *alaṅkāra*, *alaṅkārakara* 또는 *mahābhāṣyālaṅkāra*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그가 인용하는 대부분의 구절을 뿌라즈나의 <<바사>> (*Pramāṇavārttikabhāṣya*)에서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³¹⁾ 예를 들어, 라프나끼르띠는 결과와 독립적인 원인은 그 결과의 원인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하기 위해서 뿌라즈나를 인용한다.³²⁾ 이 입장은 <<바사>> 1장 396송에서 그대로 보여진다. 또 그는 긍정적 수반관계와 부정적 수반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뿌라즈나의 견해를 언급한다.³³⁾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긍정적 수반관계가 확정되면 부정적 수반관계도 동시에 확정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라프나끼르띠의 논서들에 나타난 인용 출처의 확인을 통해서 즈나나스리가 그의 스승인 것을 확정할 수 있다. 그가 *guru*라고 부르면서 인용하는 대부분의 구절이 즈나나스리의 논서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사실 <<찰나설논증>>은 어떤 의미에서는 즈나나스리의 <<찰나멸설품>>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 <<찰나멸논증>>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주제가 <<찰나설설품>>에 이미 나타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경우에 있어서 두 논서 사이에 차이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귀류논증(*prasaṅga*)과 귀류환원논증(*prasaṅgaviparyaya*)에 대한 것이다.³⁴⁾ 이들 논증에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

29) KBhA 28,9이하 참조.

30) KSA 77,21이하 참조.

31) 하지만 뿌라즈나의 것으로 라프나끼르띠가 인용하는 몇 개의 구절은 <<바사>>에서 찾을 수 없다. 예를 들면, KSA 72,22-23에 있는 송은 그가 뿌라즈나의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바사>>에는 이 송이 없다.

32) KSA 76,19-20. 즈나나스리도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참조KBhA 29,19-20; KBhA 56,22.

33) KSA 76,22이하 참조. 이것은 PVBh 61,12쪽이하에 나타나 있다.

이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즈나나스리와 라뜨나끼르띠는 서로 다른 논증식(*prayoga*)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귀류논증에서 즈나나스리는 “결과의 발생능력”(jananasāmarthyā)을 證因으로 들고 있는 반면에, 라뜨나끼르띠는 “발생이라고 불리는 것에 적합한 것”(jananavyavahārayogyā)을 證因으로 든다. 후기 유가행파에서 분류하는 존재의 영역 중에서 “발생능력”은 실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발생이라고 불리기에 적합한 것”은 개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라뜨나끼르띠가 두 논증에서 효력(*sāmarthyā*)이라는 용어를 <<찰나멸논증>>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즈나나스리의 논서에서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 세 번째는 그가 “발생(*karoti*)”이라는 용어를 그의 논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즈나나스리의 논서에서는 해당 구절이 발견되지 않는다.

<<찰나설논증>>에는 이들 논사들 이외에도 후기 유가행파에 속하는 다른 논사들이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르뭇따라(*Dharmottara*)와 산따라끄쉬따(*Śāntarakṣita*) 그리고 까말라쉴라(*Kamalaśīla*)이다. 이 중에서 다르뭇따라는 이름이 직접 거명되고 있다.³⁴⁾ 라뜨나끼르띠가 다르뭇따라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다르뭇따라와는 다른 계보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다르뭇따라는 뿌라즈나와 비슷한 시기인 8-9세기의 논사이고, 또한 그의 경쟁자였다. 즈나나스리와 라뜨나끼르띠는 중요한 교설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경우 뿌라즈나의 견해를 따른다. 다음으로, 산따라끄쉬따와 까말라쉴라는 사제간이다. <<찰나멸논증>>에서 라뜨나끼르띠가 이들 사제로부터 견해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한정된 일부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證因인 존재

34) KSA 67,24이하 참조; KBhA 16,22쪽 이하 참조.

35) AS 65,24: etena yad dharmottaraḥ; SSD 146,21: etad evāśāṅkya dharmottaerībhīhitam.

(sattva)가 불확정 유사인의 한 종류(asadhāraṇānaikāntika)라는 반론의 해명과 관련해서 산따라끄쉬따와 까말라설라로부터 견해를 인용한다.³⁶⁾ 하지만 동일한 구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유사한 것일 뿐이다.³⁷⁾

4. 결 론

앞서 살펴본대로, <<찰나설논증>>은 라뜨나끼르띠 이전의 니야야 학파의 논사들과 후기 유가행파 논사들로부터의 많은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그 인용된 내용은 <<찰나설논증>>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찰나설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개념인 존재(sattva)의 정의와 인과론에 대한 것이다. 라뜨나끼르띠가 상까라, 뜨릴로짜나 그리고 바짜스빠띠 등 8-10 세기의 대표적인 니야야 학파의 논사들을 비판하고, 다르마끼르띠, 뿌라즈나, 다르못따라 등의 후기 유가행파의 논사들을 체계적으로 인용하여 교설의 체계를 세우고 있는 것은 그가 후기 유가행파의 한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라뜨나끼르띠는 뿌라즈나나 즈나나스리를 인용할 때에 존칭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후기 유가행파에 소속된 논사들, 예를 들면 다르못따라를 인용할 때에는 존칭이 아닌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 이 점은 그가 후기 유가행파내에서 뿌라즈나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라뜨나끼르띠를 디그나가 - 다르마끼르띠 - 뿌라즈나 - 즈나나스리로 이어지는 후기 유가행파의 직계 전통의 계승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잘 알려진대로 11세기 경의 인도 불교는 유식, 인명학과 밀교로 대표된다. 라뜨나끼르띠는 후기 유가행파의 정통 계보를 이었으며, 그 스스로 유식, 인

36) KSA 79,11이하 참조; KBhA 43,11쪽 이하 참조

37) TS 428이하 참조; TSP 192,13쪽 이하 참조

명사상을 크게 진작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찰나멸론증>>의 인용 출처에 대한 연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의 선대 유가행파 논자들이 했던 동일한 작업을 그의 시대에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찰나설과 같은 불교의 핵심 개념을 니야야학과 등의 힌두교의 비판에 맞서 방어하고 불법을 널리 펴는 것이다.

주제어

라뜨나끼르띠Ratnakṛti, 즈냐냐스리미뜨라Jānasmitra, 뿌라즈냐까라굽타Prajākaragupta, 다르마끼르띠Dharmakṛti, 디그나가Dignāga, 바짜스빠띠미스라Vācaspatimira, 바사르바즈냐Bhāsarvaja, 트릴로짜나Trilocana, 상까라, Śāṅkara, <<찰나설멸증>>Kaabhagāsiddhi, <<찰나설설품>>Kaabhagadhyya, 후기 유가행파, 니야야 학파, 실제, 찰나설*the theory of momentariness*.

The Position of Ratnakṛti in the Yogācāra-Sautrāntika School

Woo, Je-Son

Ratnakṛti's *Kṣaṇabhaṅgasiddhi Anvayātmikā* (KSA) is an essential work to understand Indian logic and ontology.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at this work has many arguments between the Naiyāyikas and the Kṣaṇabhaṅgavādins. In numerous cases, Ratnakṛti presents the thoughts of his preceding Buddhist and Hindu philosophers in their own words on the topic under discussion and discusses them in his own wa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uncover the position of Ratnakṛti in Indian philosophical systems by way of investigating the background of each argument in the KSA. This explicates the followings: 1) Succeeding the lineage of Dignāga, Dharmakṛti, Prajñākaragupta, and Jñānasrīmitra, which is the main stream of the school of Kṣaṇabhaṅgavādins, Ratnakṛti continues the Buddhist Pramāṇa tradition in the 11th century in India; 2) Refuting the criticisms by the Naiyāyikas, such as Śāṅkara, Trilocana, Bhāsarvajña, and Vācaspatimiśra, he proves the fundamental doctrines of Buddhism like the theory of momentariness (*kṣaṇikatva*).